

<나의 문화 : My Culture> 시대의 외로움 해소에 기여할 문화-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

블루버드씨 아트솔루션 인사이트 토크
(2025.4.4. / KT&G 상상플래닛)

김 해 보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한광연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강사

sea@sfac.or.kr



김해보의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seaok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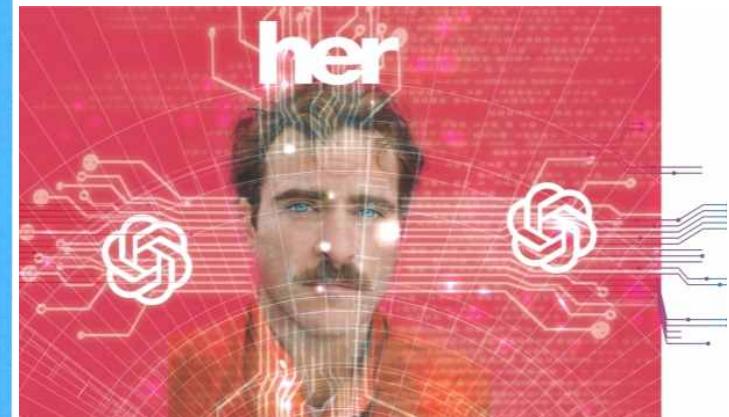
0. <나의 문화(My Culture)>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
1.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2. 외로움의 본질에 대하여
3. 문화-예술의 본질에 대하여
4. <괴로운 외로움> 해소에 기여할 문화-예술

0. <나의 문화(My Culture)>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

과학자들의 질문 –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홀로 유유자적하는
청계천의 왜가리는
정말 사회성이 없어서
외로움을 못 느끼나?
(사진 출처 : 필자 촬영)



함께 모여 살며
디지털로 연결된 인간은
왜 여전히
외로운가?

(출처 : 영화 her 포스터, 서울신문, 2024.5.14.)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더 문제인가?

혼자 있는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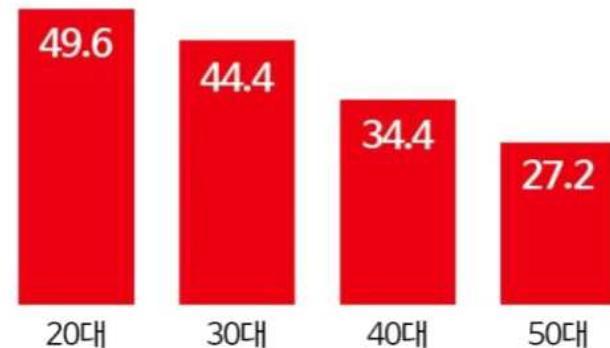
(사진 출처 : 경향신문, 2023.07.21.)

연결 되는 괴로움?

'대면소통' 두려워하는 20·30

(단위: %, 출처: 마크로밀엠브레인 '2024년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상황이 되면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걱정된다 *답변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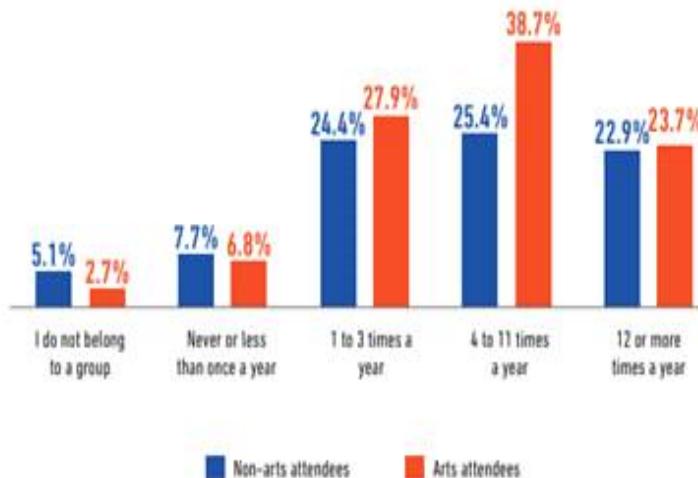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마크로밀엠브레인, 아시아경제, 2024.5.5.)

정책이 자랑하는 좀 뻔하고 흔한 이야기들

문화-예술로 외로움 해소

검증 안 된 인과관계 or 상관관계

Percent of U.S. adults who reported feeling lonely, by frequency and whether they attended an in-person arts event in the previous month



Source: U.S. Census Bureau, Household Pulse Survey, Phase 4.1, Cycles 04-07, April 2 – July 22, 2024.

자료 출처 : “Arts Attendance, Art-Making, and Social Connectedness: Spring/Summer 2024” (NEA, 2024)

많아지면 좋을 사회 현상

그냥 즐거운 문화예술

문화활력충전소
문화갑계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 24.(월) ~ 3. 9.(일) 23:59까지

모집대상 생활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고흥군 거주 및 거소자 180명

활동기간 3월~10월 (8개월) ※ 오리엔테이션 강석, 활동공유회 참여 등

주요활동 공통 - 월 1회 이상 모임
취향갑계 - 사회공헌활동 3회 이상
실험갑계 - 워크숍, 포럼, 활동지 발간 등 2회 이상

신청방법 신청서를 통한 선착순(방문 및 이메일) 접수

| 갑계 종류 | | | |
|----------|--|----------|--------------------------|
| 취향갑계 | 실험갑계 | | |
| 공연 시각 | 국악, 연극, 클래식 회화, 사진, 도자 | 환경 마을 | 비디, 산, 동네 유래, 사찰, 건축물 |
| 실용 | 공예 1 (전통/ 한지, 매듭 등) 공예 2 (천연/ 염색, 아로마 등) 공예 3 (가죽, 라탄, 비즈 등) | 돌봄 | 다문화, 1인가구, 노인 |

갑계 별 최소 8인~ 최대 10인으로 구성
두 가지 유형 중복 지원 불가 / 단체, 동일 성격의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고흥군 <문화갑계> 참여자 모집 포스터

굳이 강조하는 정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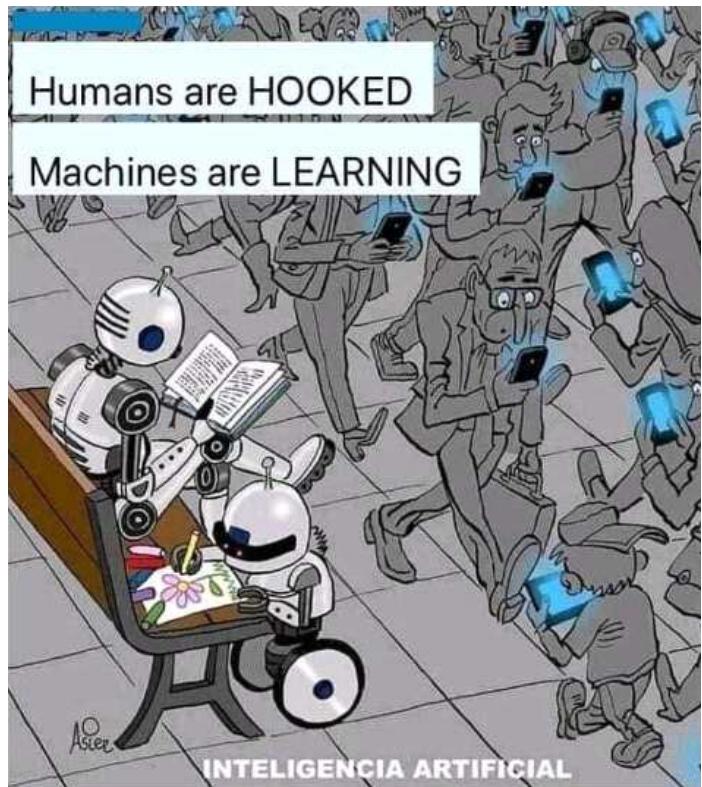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



Dancing Through Parkinson's
– Dance for Everybody, led by Rachel Whiting

(사진 출처 : "Arts & Health Week" 홈페이지)

이제 한시도 혼자 있지 않는 인간들의 외로움을 이해하려면...



기계가 추천하고 반응해 주는
<나의 취향(My Taste)>을
<나의 문화(My Culture)>
로 착각하게 하는

진짜 같은 현실감(Reality)
생성 기술들이
진정한 실재(Real)를 찾아갈
사고력과 문화생성력을
퇴화시키는

Culture
as
Algorithm
시대

Culture
on the
Algorithm

디지털화된,
가벼워지는

Culture
by the
Algorithm

기계가
생성하는,
초개인화된

Culture
for the
Algorithm

인간다움이
관건인,
기계를 위한

(사진 출처: Medium)

AI가 만드는 <나의 문화(My Culture)> 시대에 <인간은 왜 외로운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알아야 할 것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의 효능

외로움을 이해하고
직면하게 해주는

문화예술의 본질



달라져야 하는 질문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인간은 왜 외로운
존재인가?

외로움 해소를 위해 이해해야 할 세 가지 본질 (전체 요약)

인간 존재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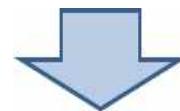
- ▷ <죽는> 생태적 존재
- ▷ <일하는> 사회적 존재

외로움의 본질

- ▷ 연결되지 않고 <존재하는 쓸쓸함>
- ▷ 혼자 애쓰며 <기능하는 고단함>

문화-예술의 본질

- ▷ 物相雜(서로 얹힘)
- ▷ 藝(개별자를 키우는 기술)



살아야 할 이유 필요

- ▷ 쾌락+번식 ~ 번성
- ▷ 삶의 보람과 의미 찾기

서로 살리는 연결로 해소 가능

- ▷ 서로 소통하여 보편자로 연결되기
- ▷ 서로 기대며 개별자로 살아가기

개별자-보편자의 상생

- ▷ 相然(상연) : 서로 그러함
- ▷ 和而不同(화이부동) : 조화+다양

1.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미키-17>에서 파악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

생태적으로 <존재>하기

개별자 ◎ 種의 표현형

(누구나) 죽는 존재

+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존재 (희생)

사회적으로 <기능>하기

행위 주체 ◎ 시스템의 부품

(혼자만) 죽어야 하는 존재

+

(계약에 따라) 죽지 못하는 존재 (재생)



<생태적 존재>로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존재적 외로움>

태어난 인간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계속 살아갈 수 있음

개체의 쾌락
(먹기, 놀기)

번성 전략

種의 번식
(생식, 복제)

개별자와 보편자의 연결로 문제 해결 노력



결국 닥쳐오는 <존재적 외로움>

유한한 쾌락 뒤의
허전함

고독-허무

지워지는 개별성의
무상함

삶의 보람이 되는 <의미>를 찾아야 외로움이 해결됨

죽음으로써 까지 일 해야 하는 인간의 외로움 : 고단함과 쓸쓸함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기능적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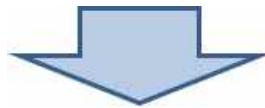
일하는 인간이
계속 재생산되어야 사회시스템이 유지됨

계급으로 재생산
(하청)

생산체계

기술로 대체
(로봇)

협업/분업과 기술개발로 문제 해결 노력



결국 닥쳐오는 <기능적 외로움>

물화(物化)되는 인간
자기와 멀어짐

인간소외

고립된 노동의 고달픔
기계로 대체됨

<노는 존재>로 되돌아가야 외로움이 해결됨

2. 외로움의 본질에 대하여



혼자 있어 괴로운 것이 문제!

혼자 있어 편안한 것도 문제?

같이 있어 괴로운 것도 문제?



혼자 일하는 어부의 고단함 vs. 쓸쓸함

(사진 출처 : 서울신문(2010.4.26.))

<괴로운 외로움>의 두 가지 모습

쓸쓸함 + 고단함

외로운

형용사로서 외로움

쓸쓸한 ~ 寂寂(적적)

외로(이)

부사로서 외로움

혼자서 ~ 寂寞(적막)

<괴로운 외로움>의 두 가지 모습

쓸쓸함 + 고단함

외로운

형용사로서 외로움

쓸쓸한 ~ 寂寂(적적)

외로(이)

부사로서 외로움

혼자서 ~ 寂寘(적막)

생태적 존재, 즉 <죽는 인간>의
<존재> 상태(be : 然)와 관련된 외로움

보편자로 연결되지

안 한 / 못 한

쓸쓸함 / 불안함

개별자로 따로

존재하려고 애쓰는
고단함

<존재적 외로움>

사회적 존재, 즉 <일하는 인간>의
<기능> 수행(do : 爲)과 관련된 외로움

주어진 일을

혼자 수행하는
고단함

돌봐지지 않은

생태적 자아의
쓸쓸함

<기능적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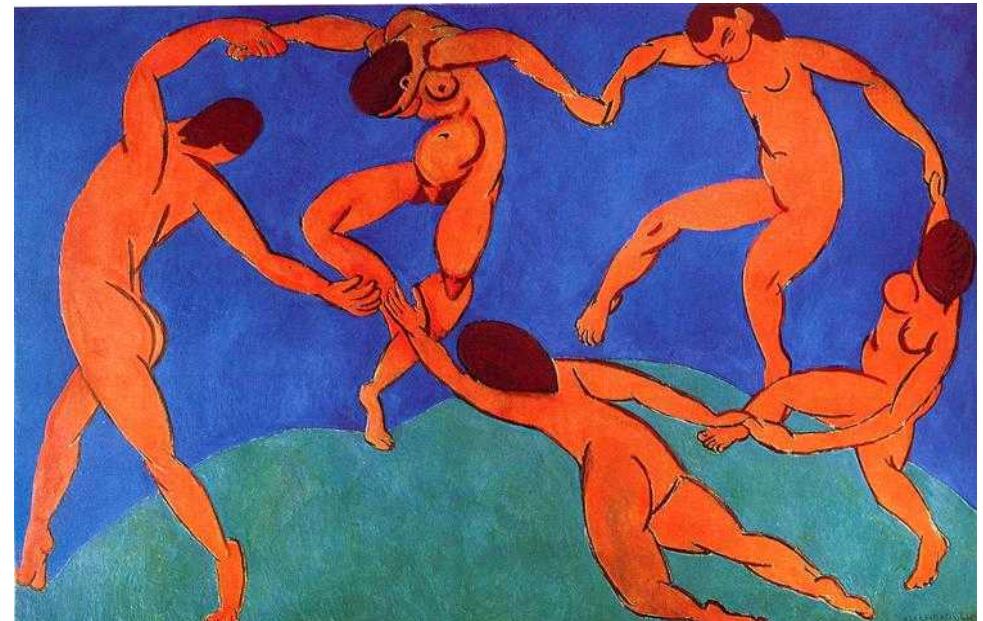
서로 <살리는> <연결됨>으로 해소될 수 있음

3. 문화-예술의 본질에 대하여

<문화-예술>이라는 오래된 생존 기술 ~ 인간을 연결하고 살리는!



Memo AKTEN의 “Embodying Earth”
(출처 : 작가 홈페이지)



앙리 마티스의 “Dance II” (1910)
(출처 : WikiArt)

“..비록 피부라는 경계가 있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그것을 넘어선 “연결”이다.
피부는 경계가 아니라 소통의 인터페이스이다... 춤은 거울신경세포가 작용하는,
서로 바라보며 소통하는, 인간 몸의 본질이다...

춤은 인간들이 연결, 제의, 축제를 위해 사용했던 최초의 문화기술이다...

땅을 구르는 춤의 진동이 땅으로 연결된 타자를 진동시키고 그들끼리의 심장 박동을
동기화시키는 힘이 있다.

...춤은 매우 초기 버전의 언어이다...”

언폴드엑스 2024 참여작 “Boundaries”의 작가
메모 악텐(Memo AKTEN)과 인터뷰 중, 2024.11.8.

(출처 : <Unfold X 2024>에서 읽히는 기술-예술-미래-인간』(김해보,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서울문화재단, 2024)

동양 고전에서 찾은
문화-예술의 본질 = 연결과 키움

文(문)

(in 주역)

爻

物相雜(물상잡)

(서로 섞임)

土

賁卦/文飾(비괘/문식)

(꾸밈)

藝(예)

(in 설문해자)

技

益(从木)

식물을 기르다

(개별자를 키움)

기술

(살리는 재주~놀이)

文(문)

(in 주역)

藝(예)

(in 설문해자)



공자의 五至(오지)론

(in 공자가어, 논어)

인간성의 본질

文質彬彬(문질빈빈)

志於道...游於藝(지어도...유어예)

문화의 의미 새로 정립하기

문화

(Culture~文治教化)

文으로써 다스리고 교화하다

≠

文化

문으로써/서 변화하다

文 化

(문으로써/서 변화하다)

文으로써 밝히다
(change with 文)

文明(문명)

자연의 원리(天文)대로 인간이 잘살다
글과 무늬로 꾸미다

文으로서 키우다
(change as 文)

文藝(문예)

인간을 인문적 존재로 키워내다
개별자를 보편자로 키워내다

스스로 바뀜(自化) + 서로 그러함(相然)
조화로우면서도 다양함(和而不同)

文 化

(문으로써/서 변화하다)

文明自化

문으로써/서 도리를 밝혀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 것

4. <괴로운 외로움> 해소에 기여 할 문화-예술

<괴로운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의 본질 (연결+키움)

<존재적 외로움> 해소

보편자로 연결되지
안 한 / 못 한
쓸쓸함 / 불안함

物相雜(서로 섞임)
相然(서로 그러함)

개별자로 따로
존재하려고 애쓰는
고단함

藝(개별자를 키움)
和而不同(조화와 다양성)

<기능적 외로움> 해소

주어진 일을
혼자 수행하는
고단함

物相雜
(서로 기댐
~ 노동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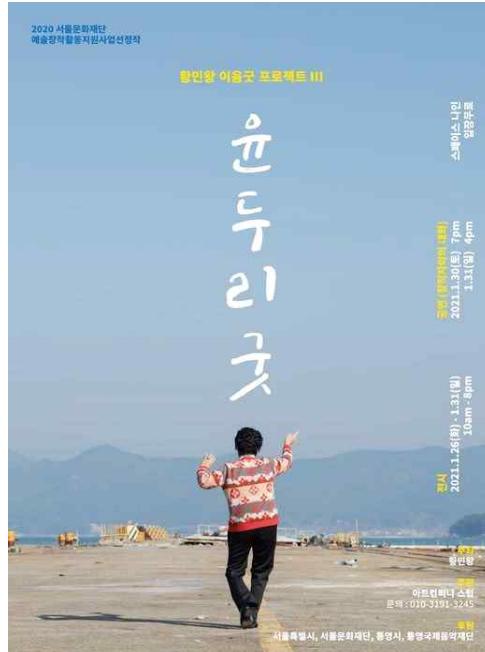
돌봐지지 않는
생태적 자아의
쓸쓸함

藝
(개별자를 살리는 재주
~ 놀이로서 일)

문화-예술을 뜻하는 좀 더 친근한 말에 담긴 깊은 뜻

| | |
|----|-------------------------------------|
| 춤 | 추다 : (몸, 어깨를) 위로 추켜 올리다 |
| 그림 | 그리다 : (의미와 이미지를) 되새기다. 그리워하다 |
| 노래 | 부르다 : (사람들을) 모으다, (기운을) 키우다 |
| 놀이 | 놀다 :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다 |

문화
(文化)
+
예술
(藝術)



춤의 어원을 잘 보여주는 포스터
(사진 출처 : 아트컴퍼니 스텝,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랑스 쇼베 동굴벽화 (3만6천년 전 조성 추정)

외로움을 해소하는 생존기술로서 문화-예술 개념 이해 보다 체험하기!



구순의 김O진님이 인생을 돌아보며 쓴 시

참고문헌

- ☞ 알고리듬 문화의 시대에 문화정책이 봉착한, 취향과 공적가치 사이의 딜레마 극복 방안에 대한 시론적 제안 _ 문화의 의미 재해석과 공감행정 (김해보, 한국예술경영학회 2023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23.5.13.)
- ☞ 『외로움을 이기는 문화기술』 (김해보,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4-13, 서울문화재단, 2024.12.4.)
- ☞ 김해보의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seaokof>에서 다른 문헌들과 함께 다운로드 가능



감사합니다

sea@sfac.or.kr